
 ◆ 政府施策 ◆

團體隨契품목 29개 축소 예정

— 通産部, 신규지정 가능한 抑制 —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이 올해 289개에서 내년에는 10% 정도 줄어든 260개로 축소조정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년도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을 올해 289개에서 10% 줄어든 260개로 축소키로 하고 오는 12월중 대상품목을 확정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단체수의계약품목에서 제외된 29개 품목은 대기업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갖춰질 때까지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71개였던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은 내년에는 100개로 늘어나게 된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품목별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이 결과를 토대로 대상품목을 정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통산부는 현재 단체수의계약품목으로 지정된 289개 품목 중 연간 계약실적이 2억5천만원 이하이거나 특정업체에 계약물량이 편중배정돼온 품목, 소관 협동조합이 불분명한 품목 등을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현재 단체수의계약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규지정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통산부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토록 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중소기업 보호 측면보다는 중소기업의 품질향상 의욕을 오히려 저해하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향후 점차적으로 대상품목을 축소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작년에 118개 공공기관이 3조1925억 원어치의 구매계약을 올린바 있다.

'96年度 産·學·研 공동 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 지원 - 1,012개 중소기업, 61개 지방대 참여 -

중소기업청은 11월 1일 전국 14개 시·도에 소재한 61개 지방대학에 '96년도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을 지정하기로 하고, 각 지역컨소시엄의 주관대학 총(학)장과 지원협약을 체결하였다.

제 4차년도 사업에 해당하는 “'96년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역컨소시엄” 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부산, 대구 등 전국 14개 시·도에 소재한 61개 지방대학과 1,012개 중소기업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모두 960개 과제를 선정하여 내년 8월말까지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소요사업비는 정부예산 70억원과 각 시·도 예산 52억원이 지원되며 참여기업 분담금 58억원, 각 주관대학의 지원금 9억원 등 총 18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동 사업은 기술인력과 정보, 자금 및 연구개발 장비 등 전반적인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지방대학의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과 시설·기자재를 활용하여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관대학과 10개 이상의 인근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컨소시엄의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컨소시엄의 주요활동은 선정된 개발과제를 참여기업 연구진과 대학의 연구진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생산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애로기술에 대하여도 대학의 연구·기술인력이 상담과 자문 및 지도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한편, 금년 8월말에 완료된 '95년도의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산업 재산권출원 127건과 시제품개발 347건, 공정개선 291건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바 있으며, 특히 산업기술대전을 비롯하여 각종 전시회에 출품한 사례도 33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참여기업의 만족도 조사를 위해 716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컨소시엄을 통한 기술개발 및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86.6% 수준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제도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